

##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3-8

-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방식이 이 그래픽(그래픽: “당신의 복음”)와 같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면들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을 최고의 여러분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

저는 확실히 저를 이렇게 봅니다. 이제 Ray HW Ministries 공식 매장, 즉 리소스 센터에서 Ray HW Ministries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사진: 상품이 포함된 RHW Ministries). 모조품도 있으니 공식 매장에 꼭 가보세요!



제가 혹시 이런 일을 하면, 와서 저를 붙잡고 말해주세요. “레이 목사님, 목사님 이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윌링던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셨네요. 잠깐 쉬셔야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Vinh목사가 지난 주말, 로마서 12장-16장이 우리들을, 로마서 1-11장에 있는 신학적 기초에서 매일매일의 신앙 실천으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직접 문맥을 보면 로마서 12:1-2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합당하고 마땅한 반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픽: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중심인 삶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시험하고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요.

3-8절에서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라.

### 1.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3절에, 흥미로운 말들이 있습니다.(슬라이드): 3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생각하라(생각), 각각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다" 라는 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지혜롭게 생각하다" 등 네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과 은사를 주셨는지 인정하고 그 많고 적은 믿음과 은사에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며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가진 은사 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바울은 “분별력 있게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은 현실에 대해 잘 아는 것입니다. 우월감에 빠지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이것은 로마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과장해서 써놓은 것을 읽고 싶다면, 로마제국의 칼럼이나 왕이 내린 칙령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거는 어린아이가 “저 사람은 45만 키로 (100만 파운드) 도 들어올릴 수 있어요!”라고 말할 텐데.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써냈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 당시 로마와 현재 우리가 명예와 지위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약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가진 지혜, 능력, 힘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측정'이라는 단어는 “메트론”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미터"라는 단어인데. 이는 “척도” 또는 “측량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원어에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믿음의 기준대로” 또는 “복음의 기준에 따라”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복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들(죄를 지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렸는 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춰서 생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는 존재도 절대 아닙니다.

둘째, 나 자신을 바르게 보기

## 2. 예수님의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나요, 아니면 유기체의 구성원으로 보나요?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인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 많은 구성원들, 영적 은사의 다양성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다민족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윌링던 교회처럼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구성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보에100개와 트럼본100개 만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악기를 함께 연주할 때, 우리가 복음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 세상에. 우리는 서로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은 “자기 교리”입니다. 즉, 모두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란 겁니다. 내가 중심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그래픽: 예수의 복음), 우리 자신이 아니라요. 다른 말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지체에 관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아실현에 관한 것보다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자아실현, 나의 은사, 나의 경력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 즉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족입니다. 우리 중 실제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가족의 복지와 사명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그분의 몸 된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통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잘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나와 나의 사역보다는 그분의 교회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곳이 아닌 겁니다!

셋째, 자신을 바르게 보기...

## 3.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된 생각으로, 분명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한테 있는 그 은사 중 원래 갖고 있었던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것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각자는 우리만의 독특한 성격, 살아온 이야기,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창조하신 각자의 특별한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일은 오직 여러분 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아는 것이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학업이나 직업적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6-8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은사의 몇 가지 예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다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언, 봉사, 가르침, 권면, 헌신, 인도, 공훈.

영적인 은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됩니다(슬라이드):

- a. 말하는 은사: 예언,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지식의 말씀
- b. 섬김의 은사: 봉사, 나눔, 자비, 친절
- c. 다스리는 은사: 관리, 행정, 지혜
- d. 표적의 은사: 기적, 방언, 방언 통역, 치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은사들 중에 여러 가지를 행하시겠지만 아마도 두세 가지 은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말하는 은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시고 긴장하는 은사도 같이 시작할게요.

6 예언이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이 그 목록의 첫 번째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예언”은 신약의 네 가지 은사 목록에 모두 있는 유일한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전 14:1). 또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데살로니가 전서 5:20).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적 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예언적 은사이며,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보편적인 권위를 갖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그 예로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예언적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권위는 없습니다. 이 예언들은 성경에 비추어 평가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러한 예언의 말들은 교회 생활의 어느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교인을 상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준비시키고, 강하게 해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4:3-4, 24-25).

고전 14:3-4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는 것**

이러한 말들이 맞는지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누군가 당신에게 말씀을 저울질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b. 그 말씀이 격려와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가?  
고린도전서 14: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 c. 그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하는가? 바울은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라고 썼습니다. 원문에는 “신앙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 따라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적절한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말하기 은사입니다. 8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권면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돕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권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힘을 주기 위해 함께 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졌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면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예: 바나바, 마가 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실질적인 다음 단계를 밟으라고 권고합니다.

또 다른 말하는 은사: 7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친다'라는 말은 가르치고,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 짜인 복음 주제를 알고 싶어 하고, 그 주제가 어떻게 모두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치며, 교회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일깨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도록 지도하는 것.**

윌링던에는 이 은사를 행하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윌링던 성경/ 사역 학교, 어린이 사역, 학생 사역, ILM 펠로우십, 소그룹, 디스커버리 그룹, 남성회 사역, 여성회 사역, 멘토링 사역 등.

저는 랍 목사님이 세 가지 말하는 은사를 모두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큰 목자였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려고 노력했으며 항상 교회 식구들과 직원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그때 딱 맞는 말씀을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예언의 말을 하듯 교만하거나 한 모습이 아닌,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랍 목사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제 두 번째 은사, 섬김의 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7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식사 시중을 든다”이지만, 성경에서는 “사역”으로 보통 번역됩니다. 이는 사랑으로 행하는 ‘실질적인 봉사를 의미하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강화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 **섬김: 그리스도의 몸을 실질적인, 사랑으로 지원하는 것.**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 교인들이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섬기시는 분들은 뒤에서 봉사하는 데 만족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교회를 축복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Willingdon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행사 및 주방 봉사팀, 부서 코디네이터, 재정 팀, 교회 시설 팀, 기술 팀.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부서 간 사역 시 많은 공백을 메우고 교회가 사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여기 섬김의 은사를 가진 우리 교회 가족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Len Soet(사진). 렌은 2023년 버나비의 올해의 뛰어난 시민으로 쿠시로컵을 수상했습니다.

Len은 지역 비영리 단체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홀리스들을 위한 단체에서 식사 제공, Willingdon Church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제2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고 Journey Home 이사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Burnaby Now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렌은 자원봉사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뛰어난 대인 관계 능력이 있고, 약속을 이행하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며, 정직한 사람입니다." 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섬김 은사는. 8 너그럽게 나누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여한다'라는 말은 '준다'라는 뜻입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풍부히” 그리고 “자신이 주목을 받지 않고”를 의미합니다.

나눔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재물, 시간, 은사)을 관리하는 현명한 청지기이며, 생활 방식을 조정해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 지역에서도, 해외에서도 하십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이런 나눔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데서 큰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섬김의 은사입니다. 8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질병, 정신병,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 학대, 중독, 가난, 노령, 투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연민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런 분들은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분들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자비를 베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고 치유 과정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바라봐 줍니다.

Willingdon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라이프 그룹, 프리덤 세션, 퓨어 디자이너, 배신과 치유, 심방, 자선 프로그램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사는 “**열정적으로 이끄는 사람**”

“이끈다”라는 말은 “도맡아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영감을 주고, 보호하고, 신경을 써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인도합니다. 이분들은 관리적 측면보다는 친밀한 관계적 측면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열심히” 이끄는 것은 “부지런히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한 말(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들이 “기꺼이”, “정말로 원해서” 인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도하려면 올바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즉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라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으로 인도하는 것.**

인도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 가족이 잘되고, 서로 연합함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분들은 힘을 실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도 합니다.

허브 뉴펠드(Herb Neufeld)는 70~80년대 윌링던 목회를 했던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리더십의 흔적들을 장로직, 라이프 그룹, 예배 중 기도, ILM 사역 등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슬라이드)

1.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은사 목록을 자세히 보세요. 은사를 가진 성경 인물들과 교회 가족들의 삶을 연구해 보세요.

2. 경험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은사는 사역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는 위해서 그냥 앉아 잊지 말고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3. 자기 성찰: 내가 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즐거운지? 혹시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아무도 이걸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

4. 피드백 받기: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말해 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 하는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받는지?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고 싶게 하고, 우리의 은사를 행하고 싶게 하나요?

제 막내딸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Valley Royals 육상 클럽에 출전했습니다. 딸과 저는 함께 수 킬로미터를 함께 달렸습니다. 제 딸은 매우 경쟁심이 많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제 딸은 정말 열심히 훈련했고, 경기 준비와 경기를 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제 제 딸이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구요. 제가 자기를 완전히,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달릴 것이고, 아빠의 사랑과 인정을, 어떤 성과를 통해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성과에 상관없이 제가 자기를 온전히,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아이는 그래도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는 하겠지만(개는 원래 그래요.)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제 딸은 좋아서 그것을 할 것이고, 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경기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모습과 닮도록 하게 허락해 드리세요.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여러분에 관한 것은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일부가 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 일을 꼭 찾아보십시오!